

페루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3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 의견	14

I. 일반개황

면적	1,285천 km ²	G D P	1,803억 달러 (2016년)
인구	31.5백만 명 (2016년)	1인당 GDP	5,727 달러 (2016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Nuevo Sol (Ns)
대외정책	경제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3.4 (2016년)

- 페루는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, 에콰도르, 콜롬비아, 브라질, 볼리비아,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.
-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6배 수준이며, 2016년 기준 인구는 31.5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5위, GDP 규모는 1,803억 달러로 중남미 제7위 규모임.
- 페루는 구리, 금, 아연 등이 풍부한 광물자원 부국으로,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2016년 7월 출범한 쿠친스키 (Kuczynski)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여 왔으며,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성장을 위한 친시장 정책 추진과 치안개선을 위해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야당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.
- 페루는 불법 코카인 재배 및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치안불안, 광산 개발사업 반대 시위, 부정부패 만연, 지역간 빈부격차 등에 따른 사회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.
- 페루는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, 안데스공동체(CAN) 등의 회원국으로 역내 경제·사회통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FTA 체결을 통한 양자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구 분	단위: %				
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제성장률	5.8	2.4	3.3	3.8	4.1
재정수지 / GDP	0.7	-0.3	-2.2	-2.5	-1.9
소비자물가상승률	2.8	3.3	3.6	3.6	2.5

자료: IMF.

□ 2017년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 전망

- 페루 경제는 수출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(구리, 금, 아연, 납 등)*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.

* 특히 광업은 GDP의 12%, 수출의 55%를 차지하고 있어 페루의 주요 성장동력임.

- 페루는 2010년~2013년까지 5%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*하여 왔으나,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 등에 따라 이후 경제성장률은 2~3%대 수준으로 둔화되었음.

* 연도별 경제성장률: 2010년 8.5% → 2011년 6.5% → 2012년 6.0% → 2013년 5.8%

- 다만, 2014년 이후 페루 경제성장률이 과거 원자재붐 (2010년~2013년) 시기 대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, 남미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.

* 남미 평균 경제성장률: 2014년 0.7% → 2015년 -1.3% → 2016년 -2.0%

- 2016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, 구리 등 광물생산량 확대 (신규 광산 생산 개시)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3.8%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- 구리 수출액은 2015년 82억 달러에서 2016년 102억 달러로, 금 수출액은 2015년 65억 달러에서 2016년 73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
-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, 광물 생산량 확대,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4% 초반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.

- 페루는 2016년~2025년 기간 동안 지하철 및 고속도로 건설 등 8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□ 2017년 재정수지 개선 예상

-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- 페루는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등을 규정한 재정법에 의거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, 최근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,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어 1%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

- 쿠친스키 정부는 2%±1%의 목표물가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며,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3%대를 기록하여 목표물가수준을 다소 상회하였으나,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페루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4.25%(25bps)로 인상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상향조정*하여 왔음.
- * 기준금리: 3.50%('15. 9월) → 3.75%('15. 12월) → 4.0%('16. 1월) → 4.25%('16년 2월)
- 2015 및 2016년에는 식료품 가격 인상과 솔(sol)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3.6%를 기록하였으나,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2% 중반 수준으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자재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

- 페루는 원자재(광물, 수산물, 커피 등)가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
- 원자재가 수출의 70% 이상, 특히 구리 28%, 금 20% 등 광물이 수출의 55%를 차지하고 있음.

□ 인프라 미비

- 페루는 도로,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-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(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-2017) 교통인프라 부문 세부 항목별 순위는 138개국 중 도로 110위, 철도 91위 등임.
- 페루의 유선전화 이용자 수는 100명당 9.3명, 인터넷 이용자 수는 100명당 40.9명 수준에 불과하여 유선전화, 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 보급률도 여타 중남미 국가 대비 낮은 수준임.
-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콜롬비아(유선전화 이용자 수 100명당 14.4명, 인터넷 이용자 수 100명당 56.0명 수준) 및 에콰도르(유선전화 이용자 수 100명당 15.5명, 인터넷 이용자 수 100명당 48.9명 수준) 보다 낮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광물자원 풍부

- 페루는 구리, 금, 아연, 납, 은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 부국이며, 광물 개발지역이 국토의 14%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.
- 2016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8,100만 톤으로 세계 제3위, 생산량은 160만 톤으로 세계 제2위이며, 금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2,400톤, 150톤으로 세계 제6위임.
- 아연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세계 제3위, 납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세계 제4위, 은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세계 제1위와 제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밖에도 몰리브덴, 주석, 카드뮴, 붕소 등도 풍부함.
- ※ 2015년 기준 페루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0.4조 입방미터(세계 제32위, 점유율 0.2%), 생산량은 125억 입방미터(세계 제38위, 점유율 0.4%)이며, 페루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상회하여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임.

□ 비교적 높은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 보유

- 마추픽추, 쿠스코 등 잉카문명 유적지 보유, 외국인들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등으로 관광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페루 정부도 산업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음.
- 2015년 기준 페루의 관광객 수 증가율은 9.3%로 중남미 평균(5.4~5.6%, 2014년 기준)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, 관광산업의 GDP 공헌도는 2014년 3.6%에서 2015년에는 4.9%로 상승함.
-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페루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천연자원(12위), 문화자원(26위)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.

다. 정책성과

□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 추진

- 광업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광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한바, 페루는 친시장 정책기조 등을 통해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페루는 일반광업법(Ley General de Minería)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경영안정계약*에 의한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.
 - * 세제가 개정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투자 승인시점에서 유효한 세제를 적용받게 됨. 다만, 투자자가 개정 세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.
- 세계은행에 따르면, 페루의 2017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(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)는 190개국 중 54위,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(47위), 콜롬비아(53위)에 이어 제3위를 기록,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.
- 특히, 자금조달(16위), 재산권 등록(37위)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.

□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

- 페루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.
- 페루는 10대 교역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,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90%를 상회하여 세계 최고 수준임.

- 또한 인도, 터키 등 16개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,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(TPP) 탈퇴 선언에 따라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(RCEP) 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 상 수 지	-8,582	-8,195	-8,374	-6,801	-6,057
경 상 수 지 / G D P	-4.3	-4.0	-4.4	-3.8	-3.2
상 품 수 지	503	-1,509	-3,149	1,758	2,141
수 출	42,860	39,533	34,236	36,838	40,243
수 입	42,357	41,042	37,385	35,080	38,102
외 환 보 유 액	64,423	61,185	60,413	60,508	61,393
총 외 채 잔 액	56,650	66,469	70,374	73,232	75,317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8.0	32.8	36.6	40.6	39.1
D . S . R .	14.6	14.6	14.8	14.8	12.9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o 페루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해외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.
- 2010년~2013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2014년 및 2015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.
- 2016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, 광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,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,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
- 한편,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흑자규모는 매년 40억 달러 (GDP의 2%) 내외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.
- o 수출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2015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4.4%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, 2016년에는 상품수지 흑자전환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.
- o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

- o 2015년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60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되기도 하였으나, 2016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.
- o 페루는 친시장 정책에 따른 꾸준한 FDI 유입과 해외 차입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 페루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페루는 2015년 기준 중남미 제6위 FDI 유입국으로, 최근 수년간 광업을 중심으로 연간 70억 달러 내외 규모의 FDI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,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13개월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o 또한 페루는 2015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(fiscal stabilization fund) 7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기 발생 및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등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.

□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

- o 페루는 재정·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확대되고 있으나, 외채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o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40%를 상회하고 있으며, 2017년에도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과중한 수준은 아님.
- 페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6년 26.3% 수준으로,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*에 있으나,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**을 유지하고 있음.

- * 연도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: 2013년 20.3% → 2014년 20.7% → 2015년 24.0% → 2016년 26.3%
- ** 타 중남미 국가의 2016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: 브라질 78.3%, 멕시코 56.0%, 아르헨티나 51.8%, 콜롬비아 47.5%
- o 최근 수년간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이 15%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2017년 D.S.R.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13%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 · 사회 동향

1. 정치 안정

□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중이나, 정치불안 가능성 상존

- o 2016년 6월 실시된 대선에서 중도우파 '변화를 위한 페루인당'(PPK)의 쿠친스키 (Kuczynski) 후보가 50.1%를 획득하여 49.9%를 득표한 민중권력당(FP)의 케이코 후지모리 (Keiko Fujimori) 후보를 0.2%p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.
- o 2016년 7월 출범한 쿠친스키 정부는 출범 초기 높은 국민지지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여 왔으나, 최근 지지율 하락과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정치불안 가능성이 상존함.
- 총 130석* 중 여당 의석수는 17석으로 원내 제3당에 불과하고,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추세(2016년 9월 61% → 2016년 11월 51% → 2017년 1월 35%)에 있음.
- * 케이코 후지모리가 이끄는 민중권력당이 7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임.
- o 또한 톨레도 (Toledo) 전 대통령(2001년~2006년)이 연루된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해 야당으로부터의 공세 등에 따른 정국혼란 가능성이 존재함.
- 톨레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쿠친스키 대통령은 국무총리(2005년~2006년) 및 경제부장관(2004년~2005년)을 역임한 바 있음.
- 쿠친스키 대통령은 톨레도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고, 부정부패 스캔들 수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음.

2. 사회 안정 (소요/사태)

□ 광산 개발 반대시위 및 치안불안 지속

- 환경파괴, 개발이익 분배 및 거주민 이전문제 등으로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음.
- 2015년 2월 피차나키 (Pichanaki) 지역 가스 개발사업 반대시위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, 70여 명이 부상하였고, 2015년 9월에는 라스밤바스 (Las Bambas) 지역 구리광산 개발사업 반대시위로 3명이 사망하였음.
- 2016년 10월에도 라스밤바스 지역에서의 반대시위로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반대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아푸리막(Apurimac)강, 에네(Ene)강, 만타로(Mantaro)강 계곡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코카인 재배(페루는 코카인 세계 최대 생산지)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마약밀매 단체 및 반정부 사회주의 조직인 '빛나는 길(Shining Path)'과 연계되면서 치안불안을 야기하고 있음.
-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7년 2월 마약 밀매 조직 활동 등 마약관련 범죄 및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가능성에 따라 페루 여행경보 신규발령 및 상향조정 지역을 발표*한바, 페루의 치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됨.
 - * 추르캄파 지역 등 3개 지역은 철수 권고지역으로 신규 발령되었고, 로레로주 등 4개 지역은 기존 여행유의에서 여행자제 지역으로, 후닌주 등 6개 지역은 기존 여행유의 또는 여행자제에서 철수 권고지역으로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되었음.
-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지수에서 페루의 범죄 관련 세부지표 순위는 하위권으로, 138개국 중 조직범죄 131위,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 126위를 차지하고 있음.
- 쿠친스키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치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, 경찰조직 개편 및 경찰관 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음.

□ 빈곤율 감소추세 지속되나, 지역간 빈부격차는 여전히 상존

- 페루의 빈곤율은 2005년 56%에서 2010년 31%, 2015년 22%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율이 매우 높아 지역간 빈부격차가 큼.

- 2014년 기준 페루의 도시 빈곤율은 15.8%이나, 농촌지역 빈곤율은 46.0%로 도시 빈곤율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.
- 또한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1999년 0.56에서 2014년 0.44로 감소하였으나, 불평등 소득 분배 상태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.

□ 부정부패 만연

- o 광업에 대한 높은 성장잠재력, 정부의 친시장 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나, 만연한 부정부패는 페루의 주요 투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음.
-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페루는 총 176개국 중 101위에 불과함.
- 최근 수년간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(2013년 83위, 2014년 85위, 2016년 88위, 2017년 101위)하고 있으며, 브라질(79위), 콜롬비아(90위), 아르헨티나(95위)보다 낮은 순위임.
- 알베르토 후지모리 (Alberto Fujimori) 전 대통령(1990년~2000년)이 부정부패로 투옥되어 있으며, 최근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히트(Odebrecht)가 2005년~2014년 기간 동안 페루 공직자에게 29백만 달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,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톨레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음.
- 페루 정부는 5개년 (2012년~2016년) 반부패계획 수립 및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하였고, 쿠친스키 정부 출범 후에도 반부패 법안 마련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가시적인 성과는 미진한 상황임.

3. 국제관계

□ 적극적인 역내 지역통합기구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 노력 지속

- o 페루는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, 안데스공동체(CAN), 남미국가연합(UNASUR) 등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역내 지역통합 강화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태평양동맹은 2012년에 결성되었으며, 페루, 멕시코, 콜롬비아, 칠레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.
- 안데스공동체는 1969년에 설립된 경제협력체로, 페루, 볼리비아, 콜롬비아, 에콰도르가 회원국임.

- 남미국가연합은 페루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콜롬비아, 에콰도르, 칠레 등 남미 12개국이 2008년 설립한 역내 통합기구임.
- o 페루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*에서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페루는 중국 주도의 RCEP 참여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.

* TPP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·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으로, 2015년 10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나,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폐기 위기에 놓여 있음(참여국: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싱가포르, 멕시코, 페루, 칠레, 브루나이).

- TPP 참여국 중 페루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, 캐나다, 일본, 칠레 등과는 이미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있어 TPP 폐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, 호주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브루나이 등 5개국과는 FTA 미체결 상태로, TPP 폐기시 광업,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교역 및 투자 창출 기회는 상실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양자간 FTA 체결 적극 추진

- o 페루는 미국(2009년 발효), 중국(2010년), 한국(2011년), 유럽연합(2013년)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여 양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2017년 1월 페루-온두라스 FTA가 발효되었으며, 아시아·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도, 터키, 엘살바도르 등 16개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트럼프 정부의 미국 최우선주의 (America First)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, 미국-페루 양자간 FTA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, 트럼프 정부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현실화시 구리 등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페루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

- o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액 규모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시 페루는 최근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- 2016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페루에 대한 승인금액 35.1억 달러(단기 11.4억 달러, 중장기 23.7억 달러) 중 연체액은 1.5백만 달러에 불과함.
- 과거 과중한 외채로 8차례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바 있으나, 2005년 및 2007년에 파리클럽 채무 중 45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여 채권자 신뢰회복을 도모하였고, 1996년을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채무재조정은 없는 상태임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OECD, 3등급 유지

- OECD는 2008년 페루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 까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, 2016년 10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 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3등급으로 결정되었음.
- 2008년 OECD는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, 무역상대국 다변화, FDI 유입 증대,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함.
- 페루는 국제신용평가 3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인 A- 또는 BBB+ 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양호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, 등급전망은 국제신용평가 3개사 모두 'Stable'임.
- 2014년 Moody's는 경제성장 지속, 낮은 공공채무 수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페루의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상향조정함.
- 2013년 Fitch는 페루 정부의 지속적인 외채관리 노력, 투자 증가 등을 감안하여 BBB에서 BBB+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.

□ 해외차입능력 양호

- 페루는 경상·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순조롭게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, 필요시 자유로운 차입시장 접근이 가능한바, 해외차입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페루는 2016년 9월 31억 달러 규모의 솔(sol)화 표시채권(12년 만기)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투자자는 페루 국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3등급 (2016.10)	3등급 (2015.10)
Moody's	A2 (2014. 7)	Baa2 (2012. 8)
Fitch	BBB+ (2016. 9)	BBB+ (2016. 3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: 1963년 4월 1일 (북한과는 1988년 11월 21일 수교)
- 주요 협정: 사증면제협정(1982),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(1984), 문화협정(1988), 투자증진및보호협정(1994), 관광협력협정(2003), 범죄인인도조약(2005), 자유무역협정(2011),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(2013), 무상원조협정(2013), 이중과세방지협약(2014), 형사사법공조조약(2016)
- 해외직접투자현황
 - 우리나라의 對페루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12월말 누적 기준 60건, 20.7억 달러 수준이며, 광업이 20.0억 달러(전체의 96.8%)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- 교역규모
 - 우리나라-페루간 FTA가 2011년에 발효되어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(2004년)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FTA 체결국임.
 - 2016년 기준 페루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6위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 수입대상국임.
 - 2016년 교역규모는 25억 달러 수준으로, FTA 체결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음(FTA 이전 교역규모 15억 달러~20억 달러).
 -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, 석유제품, 합성수지 등이며, 수입품은 납, 아연, 구리 등임.

<표 4> 한·페루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주요 품목
수 출	1,440	1,392	1,217	1,155	자동차, 석유제품, 합성수지 등
수 입	1,983	1,433	1,136	1,294	납, 아연, 구리 등
교역규모	3,423	2,825	2,353	2,449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페루는 2016년 3.8% 수준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,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, 광물생산량 확대,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4% 초반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3%대를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2017년에는 2% 중반 수준으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.
- 2014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, 적자 규모가 GDP 대비 2%대 수준으로 크지 않음.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최근 수년간 상품수지 적자,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는 GDP 대비 4% 내외 수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6년 7월 출범한 쿠친스키 정부는 출범 초기 높은 국민지지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으나, 최근에는 지지율 하락과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정치불안 가능성이 상존함.
- 쿠친스키 정부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치안불안 개선, 빈곤 해소,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사회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 최근에는 마약관련 범죄 등으로 인해 치안상황이 악화됨.
- OECD 3등급, 국제신용평가기관 A- 또는 BBB+ 수준의 신용도 유지,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및 해외차입능력 등을 감안시 페루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.

선임조사역 박대원 (☎02-6255-5705)

E-mail: parkdw@koreaexim.go.kr